

보도해명자료	보도일시	2017년 11월 28일(화) 배포시
	담당자	이태석 KDI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093, taesuk@kdi.re.kr) 허진욱 KDI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021, jhur@kdi.re.kr)
	배포일시	2017년 11월 28일(화)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조선일보 28일자, ‘KDI, 文 노믹스에 태클… “국민 부담 크게 늘어난다” ’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- 조선일보는 11월 28일 KDI 현안분석 ‘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’ 보고서를 인용하며,
 - “현 정부 들어선 각종 재정책대 정책 때문에 관리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”고 보도했으나 이는 보고서 취지와 다름.

<KDI 입장>

- KDI는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.
 - 다만 현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기 재정전망에 기초해 가상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, 지속적인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임.